

# 재난대비 철저 시민안전 책임진다

### 전주 덕진구, 내진보강·보수정비 추진 도로환경 조성 위한 숙원사업도 해결키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가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덕진구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점검과 순찰을 통해 노후도로와 교량에 대한 한 발 빠른 정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 등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각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백제교, 회포대교 등 내진보강 △삼례교 보수·보강 △진북1급경사지 정비 △서곡광장~추천대교 연결도로 개설 △주민불편도로 포장 △LED가로등 신설·교체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경북 포항과 지난해 경

주의 사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진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와 교량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먼저, 받침 노후화와 부식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재난사고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백제교와 회포대교의 내진보강 22개소(백제교 118개, 회포대교 78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회포대교와 함께 전주·완주 연결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교량붕괴 위험이 높은 삼례교에 대한 전면 보강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현재 교량보수를 위한 실시계획을 완료한 상태로, 총 70억원의 사

업비 중 현재 확보된 14억원의 예산으로 삼례방향 구교를 보수하고 부족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북동 화산공원(진북동 산65-2번지 근린공원) 인근 진북1급경사지 봉곡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추진한다.

이곳은 지난해 암석일부 풍화로 낙석이 발생해 주변 가옥이 파손되는 등 그동안 적은 비에도 낙석위험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항상 위협받아온 지역으로, 구는 암반정비 후 방자망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주 북부권 교통 네트워크 형성과 시민 편의 제공,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로확장 대수술에도 착수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통행량에 비해 폭이 5~6m로 매우 협소하고 잦은 도로파임 현상으로 통행안전에 위협받는 추천

대교)는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구는 주변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거쳐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암동 거북바우로 공원 주변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도로포장과 주차선 도색을 통해 해결하고, 첫마중길 인근 도로(우아동 대자인병원~웨딩의전당 뒤)에 대한 포장을 실시해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우아2동 천변과 인후동 이중현대아파트, 송천동 송북초등학교 등 81개소에는 노후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신설·교체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이밖에, 포트홀 발생과 배수관 막힘 등 소규모 파손이나 동절기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체 현장인력 및 단가계약 업체를 즉시 투입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 전북대-베트남 호치민대학 국제교류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베트남 대표 대학인 국립 호치민 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교(이하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개교 60주년 행사 방문을 통해 양교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9일부터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전북대 정성석 대외협력부총장은 20일 오후 열린 이 대학 개교 60주년 행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정 부총장은 이 대학 반보선 총장을 접견하고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교수 교류를 증진하고 학술자료 공유 및 공동 세미나 개최, 학생 교류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는 1955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

뤄 왔으며 특히 지난 60년간 인문·사회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를 통해 QS랭킹 베트남 내 2위 대학으로 발전했다.

전북대는 지난 2016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와 MOU를 맺고 해외봉사활동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양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의 협조와 지원 속에 전북대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직접 기획한 10번째 신한류 축제가 성황리 열려 한국 문화의 멋과 흥을 전했다.

정성석 부총장은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 교수, 직원뿐만 아닌 학술교류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미래교사 사범대학생 역량 업그레이드

### 전국 좋은수업 콘테스트서 전북대 우수상 "고민 과정 속 많은 것 느꼈다" 소감 밝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총국대학교가 최근 개최한 '제1회 전국 좋은 수업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는 미래에 교사가 될 사범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좋은 수업을 구성해 보고 직접 실연을 해 봄으로써 교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전국 사범대학 재학생(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안과 동영상 심사 등을 통한 예선을 거쳐 11개 대학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지난 17일 자신들이 만든 좋은 수업을 실연하는 방식으로 자웅을 겨뤘다. 이 대회에 전북대 대표로 출전한 권보미·최수정(국어교육과 3학년) 학생이 자서전 쓰기(중학교 3학년 과정)를 수업 주제로 한 수업을 펼쳐 보였다.

이들은 국어교육과의 전공과목 중 하나인 '국어와 교재연구 및 지도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로 사범대학 학장(과학교육학부 조규성 교수)과 국어교육과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전북대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국어교육과의 지원을 받아 수업 실연 연습에 구슬땀을 흘려왔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어교육과에서는 그간 재학생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고 이 대회 역시 ACE+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권보미 학생은 "중학교 국어 과목 내용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수업을 구상했다.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이 적절할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총국대학교가 최근 개최한 '제1회 전국 좋은 수업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내일 지방분권시대 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전북도교육청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용석)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반상진)와 공동 주관으로 '지방분권시대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내민주 총부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분권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발표하며 임문영 경인교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를, 이현국 대전대 교수가 '주민참여예산 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 발표한다.

이와함께 신가희 연세대 박사과정

과 김영록 강원대 교수가 '교육재정 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효과 분석' 발표한다. 또 민경준, 황해정, 김가람 중앙대 박사과정,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 분 시도교육청 재정구조의 차이'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의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정해은 기자